

'24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 연 번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 방송사 | | 총 인원 (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 (명) | 경영진 외(명) | | | | |
| 24 -7 | 7.17 | 회의실 | 11/12 | 4 | 1 | 16 | ○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김준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희(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정용욱(디지털뉴스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0 | 9 | 2 | 0 | 1 | 12 | 0 | 12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12 | 0 | 0 | 12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월 |
|----|---|--|--------|
| 보도 | AI 기업 투자자에게 소개 필요 | <뉴스투데이> 광주 시집적단지 기업 성장세 ‘뚜렷’(7.25), <뉴스데스크> 획기적 속도 개선 자율주행 앞당긴다(7.25) 등 방송 조치 | ’24.7. |
| ” | 홈페이지 우리동네 뉴스, 다양한 지역 관련 현안 신속한 전달 바람 | 담당 부서에 신속 업데이트 권고 조치(7.29) | ” |
| ” | 취재 중 아름다운 뒷이야기, 미담 등 소개 바람 | <뉴스데스크> 무더위와 싸우는 사람들(7.30), <뉴스투데이> 못 배운 설움 비켜라 인생은 지금부터(7.23),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 운용 등 방송 조치 | ” |
| ” |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 소속 선수 소개 바람 | <뉴스데스크> 올림픽 빛낼 광주·전남 별들(7.18), <뉴스투데이> 올림픽 빛낼 광주·전남 별들(7.18), 지역 금메달 기대주··결전지 파리로(7.23), 파리로 향한 전남 선수들..가족·시민 응원 물결(7.26), 승전보에 잠 못 이루는 밤(8.5), 남수현 양궁 금메달 들고 ‘금의 환향’(8.6) 등 방송 조치 | ” |
| ” | <시사 용광로> GGM이라는 용어만 사용. 우리말 사용으로 시청자 이해 돕기를 바람 |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7.29) | ” |
| ” | <시사 용광로>, 진행자가 쓰레기 소각장 ‘혐오시설’로 표현보다는 ‘기피 시설’과 같이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이 적절했을 것임 |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7.29) | ” |
| ” |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일자리, 대학 교육 등에 대한 보도 바람 | 광주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학점인정 과정 운영(7.29), ‘글로벌대학 30’ 본지정 계획서 제출(7.29) 등 방송 조치 | ” |
| ” | <뉴스데스크> 여수 관광 관련 보도(7월 10일), 통계자료 등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자료 활용 없어 아쉬움 |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7.29) | ” |
| ” | 우리 지역에서 만이라도 인구소멸에 대한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 <뉴스데스크> 저출생 고착화··유소년 인구 반토막(7.18), 광주전남시도민회·호남 MBC 3사 업무협약(7.22), <뉴스투데이> 여수 인구 27만 명 무너져··“차별화된 정책 필요”(7.24), 지역 MBC 6개 사 라디오 12부작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제작, 편성(7.5~현재) 등 방송 조치 | ” |
| 교양 | <남도탐구생활> 독특하고 유익한 광주지 | <남도탐구생활> 책으로 만나는 나의 | ” |

| | | | |
|---------------|---|--|---|
| | 역 활동 소개 바람 | 꿈 제12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7.18), 부르면 갑니다 광주 투어버스(7.23) 등 방송 조치 | |
| " | AI 다큐멘터리에서 기업의 역량, 역할 다뤄주길 바람 |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에 해당 내용 반영 권고 조치(7.29) | |
| 기타(방송통신심의위원회) | 6월 29일 정파 사고 발생, 약 51분간 <놀면 뭐 하니?> 및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 일부가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고, 지체없이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음 | 텔레비전 사과 방송 당일 20시 23분 외 12회 실시 조치 | " |
| 합계 | | 12건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 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 (임기)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 상시의견수렴방법 | 내용 |
|-----------------|----------|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 고 | 반론 |
| 보도 | AI 기업 투자자에게 소개 필요 | AI 산업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에 임하겠음 | ○ | | |
| " | 홈페이지 우리동네 뉴스, 2022년 이후 업데이트 안 됨. 다양한 지역 관련 현안 전달 바람 | 개편된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으로 신속한 업데이트 진행하겠음 | ○ | | |
| " | 취재 중 아름다운 뒷이야기, 미담 등 소개 바람 | 역강부약의 정신으로 힘없는 이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취재 보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 ○ | | |
| " | 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 출신 선수, 소속 선수 소개 바람 | 안세영, 임애지 등 우리 지역 출신들의 선전을 올림픽 이후에도 알려 나가겠음 | ○ | | |
| " | <시사 용광로> GGM이라는 용어만 사용. 우리말 사용으로 시청자 이해 돕기를 바람 |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말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 나가도록 제작진과 논의하겠음 | ○ | | |
| " | <시사 용광로>, 진행자가 쓰레기 소각장 '혐오시설'로 표현보다는 '기피 시설'과 같이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이 적절했을 것임 |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표현과 가치중립적 표현이 골고루 쓰이도록 고민하겠음 | ○ | | |
| " |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일자리, 대학 교육 등에 대한 보도 바람 |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취재 보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 ○ | | |
| " | <뉴스데스크> 여수 관광 관련 보도(7월 10일), 통계자료 등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자료 활용 없어 아쉬움 | 뉴스에 통계치를 인용할 때 컴퓨터 그래픽과 자막 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 ○ | | |
| " | 우리 지역에서 만이라도 인구소멸에 대한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 |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발제해 보도하겠음 | ○ | | |
| 교양 | <남도탐구생활> 독특하고 유익한 광주지역 활동 소개 바람 | 소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음 | ○ | | |
| " | AI 다큐멘터리에서 기업의 역량, 역할 다뤄주길 바람 |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에 반영하겠음 | ○ | | |
| 기타(방송통신심의위원회) | 6월 29일 정파 사고 발생, 약 51분간 <놀면 뭐 하니?> 및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 일부가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음 | 폭우로 인해 사고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음 | ○ |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7월)

| | | | |
|-----|-----------------------|---|-----|
| 일시 | 2024. 7. 17. 수. 오후 5시 | 장소 | 회의실 |
| 참석자 | 위원회 | 강필오, 김동진, 김안나, 김준하, 박양우, 박종수, 유한별, 이경주, 이숙희, 정인영, 정희(11명) | |
| | 회사 |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정용욱 디지털뉴스팀장(4명) |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지난달 첫 회의에서 잘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광주MBC가 최고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의견 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7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잃어버리는 건 금방인데 다시 찾는 건 더 어렵다. 방송 독립을 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봤다. 그런 토대를 통해 광주MBC는 지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전남 방송사로 저희가 지향하는 큰 줄기는 글로벌 콘텐츠를 확산하는 기지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김치와 김장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꾸준히 계속 진심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치, 김장을 세계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감사하다. MBC가 대한민국 언론사 가운데 김치 선봉장이 되고 나가서 세계의 김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주요 보고사항을 해달라.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아시안 탑 밴드 시즌2> 참가국과의 MOU가 인천에서 7월 9일에 진행됐다. 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6개국 8개 방송사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11월 녹화, 2025년 2월 6개 나라 동시 송출을 계획하고 있다. <더 프레지던트> 촬영이 김정길 DJ정부 행자부 장관, 정세현 DJ정부 통일부 장관 등이 출연한 가운데 서울에서 7월 3일~4일 진행되며, RAPA 지역 MBC 라디오 6개 사 공동 제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 2편 송출이 7월 5일, 12일에 있다. 주요 계획으로 DJ 서거 특집 대담으로 강기정 시장, 임종석 전 실장, 강원국 작가 등이 출연 예정이며, 프로야구 라디오 중계를 7월 30일~8월 1일 예정이다. 기아 홈 두산 3연전을 표준FM을 통해 방송하며, 캐스터 류권형 아나운서, 해설 김종모 씨가 참여한다. AI 관련 특집 다큐 제작을 준비 중이다.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이자 첨단기술산업 기반인 AI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전망하고, AI 광주시대의 요건 등을 살펴볼 것이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 중계를 8월 13일 14시에 하는데 남도 전통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통주 품평회다. 막걸리, 증류주, 약·청주, 기타 주 등 총 4개 부문을 실시한다.
- 정용욱 디지털뉴스팀장 : -5.18 44주년 연속 기획보도 및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가 제18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제14회 5.18언론상을 수상한다. 발포명령자 규명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했고, 활동 시한이 끝난 5.18진상규명위원회 추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계속 넘어져요”..구청·시공사는 나 몰라라 논란 보도를 통해 광천동 현대 힐스테이트 앞 인도 보행로 공사 부실을 고발했다. 단차 발생으로 넘어지는 일이 잇따르지만, 광주 서구청과 시공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광주MBC 유튜브, 서울 MBC 유튜브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보인다. 보도 직후 2달 동안 공방을 벌이던 시공사가 하루 만에 보수를 완료했다. <시사 용광로>에서는 6월 20일 민선 8기 2년, 광주·전남 협력사업 엿박자, 6월 27일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유치 갈등..해법은? 7월 4일 반환점 돈 민선 8기, 광주시의 과제는?, 7월 11일 먹구름 낀 지역경제 해법은?을 주제로 진행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호남 MBC 3사-광주전남시도민회가 7월 22일 광주MBC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 고향 지역 MBC 유튜브 구독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향 인사에게는 고향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역 MBC에는 유튜브 구독자 증가와 새로운 사업 모색 기회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16곳과 방송권역 8개 시군 취재

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자주 만나고, 나주시, 화순군 등 광주MBC 방송권역 8개 시군 접촉 강화 등 광주시에 치중했던 취재 보도 영역을 넓혀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광주MBC 5.18 콘텐츠 디지털화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함께 광주MBC 5.18 영상자료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4백여 개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박양우 위원장 : -5.18언론상 등 수상을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자. 수고하셨다. 위원님 의견을 듣겠다.
- 정희 위원 : -콘텐츠본부에서 광주광역시 미래와 관련하여 AI 관련 특집 다큐, DJ 서거 특집 대담을 계획하고 계신 데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보도본부의 제18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은 의미 있는 수상이다. 7월 4일 자 <시사 용광로>에서 광주에 AI 관련 기업이 199개나 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의 역량과 역할을 어떻게 잘 꿰어낼지를 계획하고 있는 특집 다큐에서 다뤄주시면 좋을 듯하다. 광주에 소재한 GIST에 AI정책전략대학원이 개원했는데, AI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집 다큐에 담아 주시면 좋을 듯하다.
- 김준하 위원 : -지난주 금요일에 AI정책대학원 개원 등 큰 행사가 있었다. AI 관련 다큐 제작과 관련해 제안하려고 한다. 제가 요즘 라디오 방송을 하고 머니투데이 유튜브를 계속 찍기도 한다. 저는 이런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머니투데이는 저를 전문가로 불러서 콘티를 짜달라고 했다. 스타트업이나 AI를 제일 잘하는 데를 찾아가서 소개한다. 저는 기술에 대해 짚어 주는데 회사의 잠재력 같은 걸 방송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이 보게 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다. 광주가 AI 관련해서 주력 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광주 안에 있는 기업 소개를 안 하는 것 같다. MBC 주도로 제가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의 기업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외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지금 투자자에게 광주기업을 소개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광주기업 1년에 백 개는 할 수 있다. 기업을 찾아 애널리스트 분석을 해주면 유튜브에 바로 송출해도 좋을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성해봤으면 좋겠다.
- 이경주 위원 : -ICT 산업에서 AI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입주기업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50억씩 받는 과제에 선정이 된 곳도 있다. 콘텐츠 기업들도 AI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광주문화방송에서 자체 제작하는 음악 경영프로그램인 <아시아 탑 밴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특히 4년여만에 시즌2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의 방송사와 협업으로 진행된다는 보도 내용이 반가웠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이나 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같은 음악 행사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계기로 실력 있는 아시아 밴드 음악가들이 광주를 무대로 공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디오 <시사 톡 라이브> ‘부산은 1위인데, 전남은 14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은 세이브더칠드린이 매년 시행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결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잘 안내해주는 코너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14위, 광주는 4위로 나타난 결과가 흥미로웠다. 전남은 10년째 14위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광주의 경우 과거 12위에서 급격한 순위 변화가 있었다고 알게 되었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등이 지역의 미래 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세밀한 정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전남은 광주와 인접하고 있고, 함께 성장할 방안이 많은데 전남권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상승할 수 있는 포용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성인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판단하기보다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홈페이지 우리동네 뉴스는 광주시 외 주변 지역의 이슈를 보도하는 페이지로 보인다. 새로운 업데이트 기사가 홈페이지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최근 광주시에서 남부 거대경제권 메가시티 구축이나 달빛동맹 등 논의되고 있는 광주, 전남, 전북 및 대구시 등 광주시민이 현안에 참고할 수 있는 지자체 관련 기사 또는 기획 취재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저는 ICT를 35년을 해왔다.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역 기업들을 끼워주지 않는다.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기회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다. 적지만 지역 기업에 기회를 주면 한 계단 한 계단 갈 수 있다. 광주에 큰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산토끼만 잡으려 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확 열어줘야 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 더 열악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요즘은 뉴스를 시청하기가 두렵다. 우리 사회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의 힘이 필요하다. 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MBC 뉴스와 함께하는 시청자위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청자의 마음으로 말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암울한 경제 상황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 물론 해당하는 뉴스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삭막해졌다는 이야기를 대변할 것이다. 언론 미디어는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알림이 역할의 파급력도 있지만 지금 같은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MBC 뉴스에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즉 이 힘든 시기에 힘을 내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특종이 아닌 현재의 어그로를 끄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미담(美談)은 모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취재 중에 아름다운 뒷이야기, 미담 등 많은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곳으로 어머니의 품을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머니의 품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이런 그리운 어머니의 품을 만들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한다.

○ 정인영 위원 : -<광주MBC 보다>는 생활, 여행, 음식,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구성이다. 7월 8일 자 방송에서는 ‘아이 업고 오르는 산악회’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통 어린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경우 매우 어린 아이를 업거나 견게 하면서 험한 산이나 계곡을 트래킹하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어, 아이와의 산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내용이다. 옛 전주의 말 먹이 쉼터에서 유래한 이름, 익산 ‘마동’의 공원 미술관, 공연장, 맛집 소개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뼈를 이용한 요리로 뼈해장국, 감자탕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음식 및 맛집 소개 부분에서 등뼈 수육, 뼈 구이 등 독특한 뼈 요리를 소개해 줘 뼈의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게 되었다. MZ 해녀들이 만드는 서귀포 신레리 이야기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특히 제주만의 독특한 콘텐츠인 사라져가는 MZ세대가 제주 해녀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고 원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이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내 외국인 한마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놀거리, 먹을거리 축제를 만들어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와 어울리며 서로의 편견을 없애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축제를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은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육아, 지역 및 음식 소개,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상생 등 다양한 주제를 알차게 다루고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와 같은 독특하고 유익한 광주지역에서의 활동들을 찾아 방송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강필오 위원 : -6월 25일 <남도탐구생활>에서 탐구생활군 나주시 편을 시청했다. 2013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2024년에는 홍어 식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4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이 4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전라남도종합사격장에서 펼쳐졌다고 한다. 항일 독립전쟁 첫 승전보를 올렸던 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사격대회로,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해에 시작된 뜻깊은 대회임을 알 수 있었다. 7월 3일 <남도탐구생활>에서는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에 대해 다뤘다. 서구청 서구보건소의 마약류 익명 검사와 예방 사업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졌다. 우리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마약이 검출되고 관련 범죄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7월 15일 <전설의 타이거즈>에서는 정희열 동원대 감독이 이종범과 유럽 여행 중 김성환을 만난 사연을 소개했다. 아들 정해영 선수와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거 여담을 편안한 분위기로 나눴다. 그 당

시 과거의 제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5월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부터 시작된 프랑스 본토 내 성화 봉송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14일에는 BTS의 진이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우리 시 출신 선수, 소속 선수들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니 관련 내용이 방송되면 좋겠다.

- 김안나 위원 : -<시사 용광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현안 중 중요한 주제들을 참 잘 선정하여 토론함으로써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되었다. 7월 9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과의 토론에서 방송 중에 용어 선정이 외래어 약자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GGM 같은 경우다. 사회자도 시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GGM이라는 용어만을 쓰는데 시청자 관점에서 무슨 뜻인지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처음 한 번쯤은 한국어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취재가 시작되자’에서 집중 취재를 한 천홍희 기사를 칭찬한다. 6월 20일 뉴스에서 중앙공원 부지 수천 톤 쓰레기 더미를 두고 광주시는 추가조사가 어렵다고 시행사에 미루더니 관할 구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6월 21일 뉴스에서는 하루 만에 광주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7월 3일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넘어서 다치는 데도 수개월 동안 구청과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인도를 빠르게 보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동진 위원 : -교육청발 중등교육 문제에 대한 보도에 비해 지역 정주 인원에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일자리와 대학 교육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부산의 경우 ‘공유대학 출범’, 수시입학 특별방송, ‘부산이 서울보다 좋은 이유’, 대학로 상권 상황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보도가 6개월 이내에 다수 보도된 데에 비해 광주MBC는 부실대학, 신입생 모집 미달 등 중앙수준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보도가 많은 것이 교육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7월 11일 <뉴스데스크> “애써 정착했는데, 다시 떠난다” 보도에서는 학생 밀집도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 결국 나주를 떠나는 사람들을 다루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기업 노조와 교육청의 입장을 공유하며 학교 신설 관련 교육청의 안일한 접근방식을 지적했다. 타 신도시 사례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학교 신설에 키워드를 지나치게 한정된 면이 있다. 도청/지자체 교육 협력 시스템, 교통인프라, 안전시설 확충 등 정비가 필요한 기반이 많고 이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젠다 키워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교통과 안전시설 인프라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을 조명하면 더욱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기사였다.

- 박양우 위원장 : -<뉴스데스크> 7월 10일 보도에서 여수 관광에 관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본 뉴스에서 다른 관광지에도 다수 설치된 케이블카 등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여수 관광이 침체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섬 콘텐츠와 인근 지역 연계 관광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뉴스를 단순히 사실 전파를 넘어 충실한 내용이 있는 콘텐츠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터뷰한 대상이 관광학회 행사에 참석한 교수 위주보다 관광객들 위주로 구성했다더라면 좀 더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실감을 불어넣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생각하는 실제적인 아쉬운 점과 바라는 내용이야말로 여수 관광정책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계를 활용하거나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등 시청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한 컷만이라도 활용한다면 훨씬 시청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박종수 위원 : -7월 9일 <남도탐구생활> 심층 뉴스에서는 광주시 의회 신수정 첫 여성 의장의 선출과 광주 유기 동물 관리 포화상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전남대학교병원 뇌사자 장기기증 전국 1위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담양에서는 음식 특화 농공단지조성 및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예비후보지 중 담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예비후보지 등 주변 도시와 사전 조율도 없이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쓰레기 소각장은 누구나 민감한 사안이라 후보지 주변 주민과 그 주변 지자체와도 사전 조율과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월 10일 <남구탐구생활> 심층 뉴스에서는 2021년 경주 위덕대학교 박 모 전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5.18은 폭동이라고 말해 5.18단체에서는 박 모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박 모 교수는 5.18단체에 손해배상을 하라 판결했다.

다고 전했다. 그해 대학교 이사회에서도 박 모 교수의 해임안을 열어 해고하였다. 광주 화정동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이를 소개하였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치유센터이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국가에 피해를 본 많은 국민이 이 센터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5세 이상 인구 천만 시대다.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전남은 26%로 초고령화율이 매우 높아 관련 복지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하며, 광주·전남 인구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층은 떠나고 있어 매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물론 전국적인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만이라도 인구소멸에 대한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유한별 위원 : -<시사 용광로>에서는 광주 쓰레기 소각장 유치 갈등에 대해 다뤘다. 우선 진행자가 여러 차례 쓰레기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표현하는 것보다 자막의 기피 시설과 같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다. 또한 소각장 유치 반대 의견의 경우 주민을 무시한다고 느낀다라는 식의 근거보다는 이성적,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개진했으면 팽팽하고 유익한 토론이 되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송 이후 타 방송 <추적60분>에서 청주의 SRF 때문에 암 환자가 대거 발생한 예가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정용욱 디지털뉴스팀장 : -이숙희 위원님께서 뉴스 보기가 두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사회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안을 두고 논란을 넘어 분쟁과 다툼을 보이기도 한다. 뉴스가 아무래도 안 좋은 이야기를 쫓아가는 속성이다 보니 사건·사고 등이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담 등을 발굴해 보도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겠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주요 경기를 중계한다.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7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 광주MBC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결방한다. <남도탐구생활>, <테마기행 길>, <시사 용광로> 등 2주간 결방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다. 이것으로 7월 시청자위원회를 마무리하겠다.

끝.